

기혼여성의 인력개발과 카텍시스 : 아내의 소득, 부부관계만족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아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검증

이성희*·윤지영**

초 록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논의에서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권력'과 '노동'의 문제는 자주 언급되는 반면, 여성의 '카텍시스' 문제가 도외시되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카텍시스란 '(남편과 같은) 특정한 대상과 관련해 정서적으로 채워진 사회적 관계의 구성'을 의미한다 (Connell, 1987). 이 연구의 목적은 성(性)과 권력이론(Connell, 1987)을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권력과 노동, 카텍시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해, 아내의 권력(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내의 소득으로 대변되는 경제력), 노동(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카텍시스(아내의 부부관계만족)가 아내의 부정적 정서(우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아내의 소득과 부부관계만족,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모두 아내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아내의 부정적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아내의 소득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보다는,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논의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같은 기계적이고 양적인 접근방식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정서문제와 부부관계만족과 같은 카텍시스 구조를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노동 및 권력 구조와 함께 다루는 보다 통합적이고 질적인 차원의 여성인력개발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혼여성, 여성인력개발, 카텍시스, 부부관계, 아내 정서, 워크라이프 밸런스(워라벨)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amy44cam@gmail.com)

** 교신저자 :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ellie5900@naver.com)

I. 서론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주류담론은 여성의 고위직 상승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권력’과 ‘노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권일웅·한승희·2015 ; 허식·엄주영, 2017). 이와 대비되게,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어 왔던 기혼여성의 ‘카텍시스’의 문제를 다룬다. 카텍시스(cathexis)는 정신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 사전적 의미는 ‘심적 에너지가 어떤 대상에 집중함 또는 그 대상’을 의미한다(동아프라임영한사전, 2008). 본 연구에서는 성과 권력이론(Connell, 1987)의 정의에 따라 카텍시스를 ‘특정한 대상(예를 들어 남편과 같은 타인, 아내로서의 삶)과 관련해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으로 정의한다. 특히 이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주재선 외, 2016)를 활용하여 아내의 ‘부부관계만족’과 ‘부정적 정서(우울,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카텍시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카텍시스란 기혼여성의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정서가 아닌 젠더구조 내 사회적 관계(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한 기대) 속에서 구성되는 집단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정서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현모양처(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에 대한 암묵적 기대가 여전히 강조되는 가부장적인 한국 문화에서 취업한 기혼여성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족구성원에게 느끼는 고강도의 죄책감이 그 좋은 예이다(Lee, 2012).

인적자원개발 연구에서 기혼여성은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으로 누군가의 아내보다는, 암묵적으로 국가 혹은 고용주의 관점에서 취업자 혹은 잠재적 취업자로 상정된다. 취업한 기혼여성은 ‘아내’와 ‘취업자’의 다중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다루는 기혼여성의 카텍시스는 전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느끼는 정서(행복, 우울, 스트레스 등)보다는, ‘일만족도’, ‘직업만족도’와 같은 일터 중심의 다소 협소한 범위의 정서를 주로 다룬다(박미석·김경아·김지은, 2007 ; 이희정, 2010). 반면, 복지학, 인구학, 심리학, 여가학 분야에서는 기혼여성의 삶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정서(행복, 스트레스, 우울)를 자주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그녀들이 느끼는 정서들을 고용 혹은 노동의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김종순·오세숙·윤소영, 2016 ; 남순현, 2009 ; 박영신·김의철, 2011 ; 은기수, 2009). 이러한 기혼여성의 일과 삶(가족)에 대한 기계적이고 분절적인 이분법적 시각에 대해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일-삶(가정) 균형에 대한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다(박정열·손영미·오세숙, 2014 ; 박정열 외, 2016 ; 홍승

아, 2012). 하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의 초점은 대체적으로 기혼여성이 느끼는 ‘카텍시스’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 ‘노동’(남편의 양육 및 가사노동의 참여, 남성 육아휴직 장려, 성별임금격차 해소)과 ‘권력’(여성할당제 등)의 문제와 이를 둘러싼 해법이 논의의 주축을 이룬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내이자 (비)취업자인 기혼여성을 둘러싼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는 노동 혹은 고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카텍시스(부부관계만족, 정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워킹맘들이 가족들에게 느끼는 ‘죄책감(카텍시스)’은 현모양처를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권력) (전통적인 전업주부를 본보기로 한) 엄마로서, 혹은 아내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노동)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정서적 반응이다(Lee, 2012). 즉 현실세계에서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카텍시스, 권력, 노동 구조는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기혼여성(혹은 기혼남성)이 경험하는 권력, 노동, 카텍시스 사이의 유기적 연계관계에 대해서 ‘성과 권력 이론(theory of gender and power)’ (Connell, 1987)은 유용한 설명틀을 제공해준다(성과 권력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함).

성과 권력이론(Connell, 1987)은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남녀차별적인 ‘노동’ 구조와 ‘권력’ 구조에 주목하는 현재의 여성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주류 담론에 대해, ‘카텍시스’ 구조를 추가한다. 성과 권력이론은 여성의 총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그녀들이 느끼는 ‘카텍시스’에 주목함으로써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2008년도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한 것과 같이, 국가에서 약 10년간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고학력 기혼여성들은 출산 이후에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거나 (재)진입하기를 꺼려하는 것일까?¹⁾ 혹시 국가로부터 취업을 독려 받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그녀들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보다는) 가족의 생계 혹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동원되고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닐까? 한편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만 3살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사회적 기대 혹은 본인의 커리어보다는 자녀양육을 우선시하는 자식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마음과 같은 카텍시스의 구조적 문제 때문일까? 물론 이러한 카텍시스 구조의 문제는 남성중심의 노동시장에서의 권력구조와 이와 연계된 기혼여성에게 비우호적인 노동 및 고용 구조, 양질의 양육 시설에의 접근의 어려움 등과 같은

1) 고학력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L자형인 반면, 고졸 이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형을 보인다(이희정, 2010).

‘노동’ 구조와 ‘권력’ 구조가 함께 맞물려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고용주, 가족 혹은 국가의 입장보다는, 기혼여성의 통합적인 삶의 맥락에서 그녀들의 생각과 느낌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과 권력이론(Connell, 1987)을 바탕으로 아내의 권력(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으로 대변되는 아내의 경제‘력’), 노동(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카텍시스(부부관계만족)가 아내의 부정적 정서(스트레스,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1. 아내의 소득, 부부관계만족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아내의 소득과 정서 간 관계에 아내의 부부관계만족과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이러한 모형의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제시하지 않았던 기혼여성의 삶을 둘러싼 권력, 노동, 카텍시스의 세 가지 차원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참신한 모형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실증적 자료를 활용해 지금까지 검증된 바 없는 성과 권력이론(Connell, 1987)의 세 가지 요소(권력, 카텍시스, 노동)의 구체적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성과 권력 이론을 소개하고,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될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과 권력 이론(theory of gender and power)

지금까지 남녀차별적인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이란 개념은 학술적으로 다소 거칠고 대충 만든(crude) 개념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유리천장이란 개념은 현재의 노동구조와 권력구조가 남녀차별적임을 잘 드러내주는 현상에 대한 피상적 묘사를 할 뿐, 왜 이러한 남녀차별적 노동구조와 권력구조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작동기제와 과정에 대

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Connell(1987)은 ‘성과 권력 이론(theory of gender and power)’에서 성(gender)을 관계적 개념으로 상정하였다. 즉 그녀는 성별 구조(the structure of gender)가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되고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기혼여성의 문제는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취한다. 예를 들어 아내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같은 남편의 삶도 함께 통합적으로 포함시켜 아내의 삶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관점이다.

성과 권력이론에서 Connell(1987 : 10)은 ‘성(gender)은 (아이를 출산하는) 재생산 영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의 구조(structure)이자, 재생산과 차별되는 사회적 과정을 야기하는 (이 구조에 지배당하는) 실천들(practices)의 집단’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성별관계를 ‘가부장제’와 같은 ‘궁극적 근원, 원천적 원인’으로 가정한 채, ‘성’을 역사적으로 구체화된 사회적 구조로만 설명하는 기존의 주장들과 달리, 성별 관계가 ‘어떻게 사회적 문제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과정과 그 구성요소, 구성요소 사이의 역학관계에 대한 정교한 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성과 권력이론은 새롭다고 할 수 있다 (Connell, 1987 : 63).

성과 권력이론에서는, 두 단계의 구조 (Connell [1987]의 용어에 따르면 ‘structural inventories’)가 있다: 전체 사회적 차원의 ‘젠더 오더(gender order)’와, 특정한 기관 (예를 들어 가족, 학교, 직장, 길거리, 공공기관) 차원의 ‘젠더 레짐들(gender regimes)’이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성별화된 경험이 발생하는 가족, 직장, 학교, 길거리와 같은 특정한 기관을 Connell은 ‘젠더 레짐’이라 명명하였다. 이와 대비되게, 전체 사회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젠더 오더’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남녀사이의 권력관계의 유형을 의미한다. 즉, 성과 권력이론에서 주목할 점은 성(gender)을 서로 다른 성별 관계가 서로 다르게 발전하며 때로는 상충하는 ‘역사적 과정 (historical process)’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이론은 주어진 시간에 특정 문화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여성 (혹은 남성) ‘사이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모든 여성이 동일한 경험(예를 들어 가부장제의 차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속한 가족 젠더 레짐에서 상이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가족 젠더 레짐 내에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경제력과 발언권이 더 강한 반면, 다른 부인의 가족 젠더 레짐 내에서는 남편의 권력이 더 강할 수 있음을 성과 권력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 ‘사이의’ 차이점을 인지한 성과 권력이론은 기혼 성인여성

사이의 부부관계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 유용한 이론적 틀로 사용될 수 있다.

Connell(1987)에 의하면, 여성(혹은 남성)의 경험을 분석할 때 항상 포함되는 구체적인 세 가지 구조(혹은 실천)가 노동, 권력, 카텍시스 구조(structures of labour, power, and cathexis)이다. 이 구조들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조건 지우는 차별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노동 구조란 노동의 분화와 관계있는 것으로, 이는 가사일과 양육의 분담,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의 구분, 노동시장의 분화와 '남성 직업'과 '여성 직업'의 창출, 직장에서의 연수 기회와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불평등한 임금 등을 포함한다(ibid). 반면 권력 구조는 성(gender)과 관련된 권위, 통제, 강압의 구조, 즉, 권력의 구조이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부 사이의 상대적 소득차에서 오는 부부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는 권력 구조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가족 젠더 레짐에서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한국사회란 젠더 오더는 여성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국가와 기업의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젠더격차지수는 아랍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2016년에 0.649점(0점=부동, 1점=동등함)으로 144개국 중 116위를 차지하였다(World Economic Forum, 2016). 세 번째 사회 구조는 카텍시스 구조(structure of cathexis)로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Connell(1987 : 97)은 카텍시스(cathexis)라는 용어를 어떤 '대상(예를 들어 남편과 자녀와 같은 타인, 여성 본인의 삶)과 관련해 정서적으로 채워진 사회적 관계의 구성'이라고 일반화하였다. 예를 들면 카텍시스 구조는 '대상의 선택 유형화, 욕구와 바람직함과 관계가 있고, 결혼 및 다른 관계에서의 신의, 불신, 질투, 결속과 관련이 있으며,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정서적인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Connell, 1987 : 97). 본 연구에서는 Connell (1987)의 cathexis를 한국어의 감정(feeling) 혹은 정서(emotion)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카텍시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의 부부관계만족(결혼만족, 남편만족, 의견갈등)과 아내가 삶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부정적 정서(스트레스, 우울)를 중심으로 아내의 카텍시스 구조를 탐색하도록 한다.

노동, 권력, 카텍시스 구조는 젠더 레짐과 젠더 오더를 구성하는 주요한 구조적인 특징들이다 (Connell, 1987 : 99). 하지만 이 세 구조가 현실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Connell, 1987 : 116). 즉 카텍시스 구조, 권력 구조와 노동 구조는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 성과 권력이론(Connell, 1987)의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 성과 권력이론의 개념모델을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변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 권력이론을 토대로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내의 소득으로 대변되는 경제력(권력), 부부관계만족(카텍시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노동)이 아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는 권력, 카텍시스, 노동이 아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떤 변수의 영향력이 큰지에 대한 비교 검증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2. 선행연구 분석 :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

1)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주는 영향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이론 중 대표적인 이론은 상대적 자원이론이 있다. 상대적 자원이론은 부부 사이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인 자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기 싫은) 가사노동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쪽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England, & Farkas, 1986 ; Hook 2006). 국내에서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아내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이 증가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있다(김수정·김은지, 2007 ; 은기수, 2009). 은기수(2009 : 145)는 상대적 자원이론에 따른 상대적 소득의 효과로 아내의 소득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아내의 경우에는 일단 아내의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가사노동을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수정과 김은지(2007)는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내의 소득에 관계없이) 남편의 총 가사노동시간은 아내에 비해 극히 적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계숙(2010)은 1명 이상의 미취학아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인이 남편보다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이 평일에 약 7배, 주말에 약 3배 정도 더 긴 것을 발견하였다.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자료에도 기혼여성의 총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14분인 반면, 기혼남성의 총 가사노동 시간은 고작 39분이 었다(주재선·송치선·박진표, 2016).

2) 아내의 소득이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에 주는 영향

이희정(2010)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무직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을 가진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비교하였는데, 전문직을 가진 아내와 달리, 사무직을 가진 아내의 가구 수입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을 안 한 아내와 취업을 한 아내의 부부갈등의 요인이 다른 것을 밝힌 연구도 있는데(이희백, 2009 : 77), ‘취업을 안 한 아내는 성격요인이, 취업을 한 아내는 애정표현과 성, 자녀관계, 경제난, 건강에서 더 많은 부부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인 부부들에게서 더 많은 부부갈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희백, 2009). 이와 달리 김진경(2015)은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아내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3) 아내의 소득이 아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박영신과 김의철(2011)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복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소득이 있는 취업주부 간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을 비교함으로써 아내의 소득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전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 중에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의 전체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자녀행복, 월평균 수입, 연령의 순서를 보였다. 취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의 전체효과는 배우자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행복, 월평균 수입, 학력의 순서로 나타났다’(박영신·김의철, 2011 : 65). 이는 아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내의 소득보다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이 핵심적인 변인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영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경, 2015 ; 윤지원·황라일·조현하, 2009). 반면 취업여성만을 살펴보면, 전일제 여성 임금근로자는 시간제 여성 임금근로자들보다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정열·손영미·오세숙, 2014).

4)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 사이의 육아와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문제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있다(조흥식 외, 2006). 대부분의 연구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밝힌다(김진경, 2015 ; 마경희, 2004 ; 이희정, 2010). 영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양육협조가 많을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김진경, 2015).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의 직종(전문직과 사무직)과 관계없이, 남편이 가사분담을 더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였다(이희정, 2010). 이는 맞벌이 부부인 아내는, 남편과 달리,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가정’에서의 (아내, 엄마, 며느리, 딸로서의) 성(性)역할과 ‘직장’에서 취업자로서의 이중역할로 인해 일상적인 시간부족을 경험하기 때문에, 취업한 아내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그녀들의 결혼만족도와 직결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매년 통계청(2014)의 연구 자료에서 남편의 가사와 양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아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들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아내의 정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손영빈·윤기영, 2011 ; 옥경희·천희영 2012 ; 이인정, 2015). 뿐만 아니라 김진경(2015)은 자녀를 돌보는 일, 즉 돌봄노동으로 인해 아내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의 양육협조가 아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강란혜(2010)는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정도가 아내의 심리적 복지, 즉 아내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해가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안정적임(김동진·전효정·고은경, 2017)을 감안하였을 때,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결국 아내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이 아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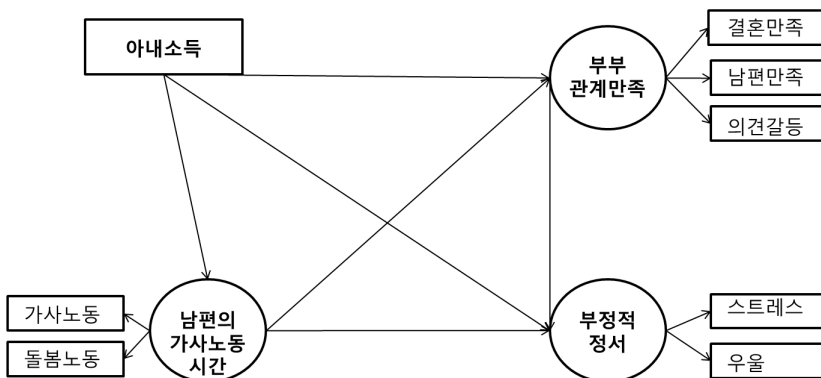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이 아내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조숙·정혜정·이주연, 2015 ; Anderson, & Sabatelli, 2003 ; Christopher, Umemura, Mann, Jacobvitz, & Hazen, 2015 ; 김진경, 2015, 재인용). 차근영, 김석선, 길민지(2017)의 연구에서는 부부 간 관계에서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때, 아내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영신, 김의철(2011)는 연구에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히며, 아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진경(2015)은 연구에서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이 궁극적으로 아내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으며, 남편의

지지에서 오는 부부관계의 만족에 대한 지각이 아내의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아내의 소득, 부부관계만족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내의 부정적 정서(우울,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이론적 탐색을 바탕으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내의 소득은 남편의 노동시간과 아내의 부부관계만족과 정서에 영향을 주며, 남편의 노동시간은 아내의 부부관계만족과 정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은 아내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경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소득은 월단위 금액으로 포함되었고,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포함하였다.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에는 결혼만족도, 남편만족도, 의견갈등(역)을 포함하고 있다. 결혼만족도와 남편만족도가 점수가 높아지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 의견갈등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갈등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서에는 스트레스와 우울로 구성하여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5차년도(주재선 외, 2016)에 참여한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전체 연구대상인 7,464명 중 현재 기혼상태를 유지한 5,729명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아내	나이	39세 이하	1,036	18.1
		40~49세	1,944	33.9
		50~59세	1,455	25.4
		60세 이상	1,294	22.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710	29.8
		고졸	2,182	38.1
		대졸 이상	1,835	32.0
		시스템 결측값	2	.0
	일자리 유무	유	3,183	55.6
		무	2,546	44.4
	월급	0	4,150	72.4
		~ 99만	314	5.5
		~ 199만	721	12.6
200만 이상		544	9.5	
남편	연령	39세 이하	608	10.6
		40~49세	1,800	31.4
		50~59세	1,563	27.3
		60세 이상	1,744	30.4
		시스템 결측값	14	.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13	22.9
		고졸	2,019	35.2
		대졸 이상	2,374	41.4
		시스템 결측값	23	.4
	월급	~ 199만	1,178	20.6
		200만 ~ 299만	1,109	19.4
		300만 ~ 399만	1,036	18.1
		400만 ~ 499만	559	9.8
		500만 이상	732	12.8
		시스템 결측값	1,115	19.5
합계			5,729	100.0

3. 주요변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주재선 외, 2016)에 포함된 변수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의와 문항내용은 다음과 같다(〈표2〉 참조). 첫째, 본 연구에서 아내소득은 월단위로 지급한 모든 평균소득을 포함한다. 즉,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특수형태근로의 급여를 모두 합산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집안일과 돌봄노동 시간을 분으로 측정해 합산한 변수로 사용한다. 조사에서 남편의 집안일은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을 칭하며, 돌봄노동은 자녀돌보거나 연로하신 부모님, 아픈 가구원 돌보기를 포함한다(주재선 외, 2016). 이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한 집안일 시간과 돌봄노동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내의 부부관계만족도에 결혼만족도, 남편만족도, 의견갈등을 포함하였다. 결혼에 만족한 정도를 10점으로 측정하고, 남편만족도는 남편과의 관계 만족을 묻는 4개 문항의 합산 점수로 표시하였다. 남편과의 의견갈등은 결혼만족도와 남편만족도와 해석을 동일시하기 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발생 빈도나 경우가 적은 것으로 환산하였다. 남편과의 의견갈등은 경우에 따라 남편과의 의견갈등이 있었던 빈도를 합산하여 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포함된 부정적 정서는 스트레스와 우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아내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와 우울을 느끼는 정도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이는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점수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표2〉 주요변수

구 분	하위요소	척도	문항수
아내소득	-	원	3문항
남편의 노동시간	가사노동	분	1문항
	돌봄노동	분	1문항
부부관계만족	결혼만족도	10점	1문항
	남편만족도	4점	4문항
	의견갈등(역)	5점	3문항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4점	8문항
	우울	4점	10문항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기술통계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모형검증을 위해 측정모형검증과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남편소득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비교는 Chi-square 값의 유의성 검증을 바탕으로 모형의 채택, 기각을 확인하나, 이는 영가설이 엄격하고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문제점이 있어 대안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Kline, 2011). 대안적 적합도 지수 중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를 포함하여 확인한다. CFI는 >.90 이상이 좋은 적합도로 판단되며, RMSEA는 <.50이면 보통, <.80이면 좋은 적합도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인 간 관계

모형의 분석 전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3>과 같이 기술통계 결과, 부인의 소득은 월평균 47.92만원, 남편의 1주일 내 노동시간은 평균 1.76시간, 결혼만족도는 전체 10점 만점에 평균 6.84, 남편 만족도는 전체 16점 만점에 평균 11.58, 의견갈등은 전체 5점 만점 중 평균 3.04, 스트레스는 전체 32점 만점 중 평균 16.30, 우울은 전체 20점 만점에 평균 17.14로 나타났다.

<표3>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 수	M (SD)	1	2	3	4	5	7	8
1. 아내소득	47.92 (100.96)	1
2. 남편 가사노동시간	1.76 (3.06)	.080***	1

변 수	M (SD)	1	2	3	4	5	7	8
3. 결혼만족도	6.84 (1.56)	.040***	.120***	1				
4. 남편만족도	11.58 (1.86)	.044***	.146***	.516***	1			
5. 의견갈등(역)	3.04 (.45)	.033*	.009	.243***	.294***	1		
7. 스트레스	16.30 (3.31)	.070***	.034*	-.180**	-.223**	-.301**	1	
8. 우울	17.14 (3.51)	-.043**	-.018	-.169**	-.191**	-.146**	.230***	1

*p < .05, **p < .01, ***p < .001

2. 모형 검증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먼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Chi-square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홍세희, 2000), 이 외 대안적 적합도 지수 중 CFI, NFI, RMSEA를 함께 보고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측정모형은 $\chi^2=538.93$, $df=16$ 에서 기각되었으나, 대안적 적합도 지수인 CFI=.87, NFI=.87, RMSEA=.08으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모형이 분석에 적합한 것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역시 마찬가지로 대안적 적합도 지수가 CFI=.87, NFI=.87, RMSEA=.08로 확인되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표4>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2	자유도	CFI	NFI	RMSEA (90% C.I.)
측정모형	504.59	16	.88	.88	.073 (.068 - .079)
구조모형	538.93	16	.87	.87	.076 (.070 -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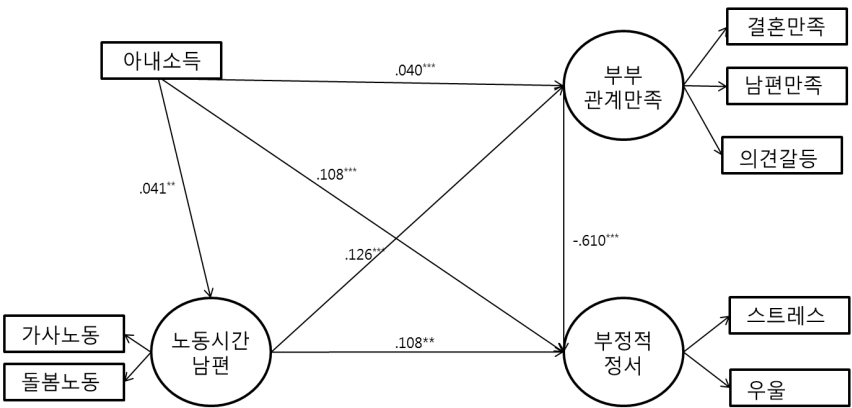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후,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5>, <그림2>에서와 같이, 아내소득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beta=.087$, $p<.01$). 이는 아내 소득이 많아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내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부부관계만족($\beta=.040$, $p<.001$)가 증가하나, 아내의 부정적 정서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201$, $p<.001$). 표준화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확인하였을 때, 아내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부관계만족이 증가하는 것보다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부부관계만족도 증가하나($\beta=.060$, $p<.001$), 부정적 정서 역시 증가하고 있다($\beta=.094$, $p<.001$). 또한, 부부관계만족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고 있다($\beta=-1.121$, $p<.001$).

〈표5〉 경로계수 유의도 검정 결과

잠재변수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C.R.
남편 가사노동시간	←	(아내소득)	.087**	.031	.041	2.798
부부관계만족	←	(아내소득)	.040*	.016	.040	2.513
부정적 정서	←	(아내소득)	.199***	.037	.108	5.426
부부관계만족	←	남편 가사노동시간	.059***	.008	.126	7.275
부정적 정서	←	남편 가사노동시간	.093***	.019	.109	4.897
부정적 정서	←	부부관계만족	-1.117***	.054	-.610	-20.67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2] 연구모형 분석 결과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부부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 가사노동시간 직접효과에 비해 아내소득의 간접효과는 그 정도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만족의 직접효과 역시 아내소득이나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간접효과에 비해 강한 직접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접효과 간 비교를 하면, 아내소득이 정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간접효과에 비해 더 적었다.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는 정도가 아내소득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는 정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변수 간 영향관계 분석 결과

잠재변수		잠재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남편 가사노동시간	←	(아내소득)	.087	.041			.087	.041
부부관계만족	←	(아내소득)	.040	.040	.005	.005	.045	.045
부정적 정서	←	(아내소득)	.199	.109	-.043	-.023	.158	.086
부부관계만족	←	남편 가사노동시간	.059	.126			.059	.126
부정적 정서	←	남편 가사노동시간	.093	.108	-.067	-.078	.027	.031
부정적 정서	←	부부관계만족	-1.117	-.610			-1.117	-.610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고용 문제와 카테시스 문제(부부관계, 삶에서 느끼는 주관적 정서)를 별개로 바라본 주류 연구동향과 차별된다. 본 연구는 성과 권력이론(Connell, 1987)을 토대로 여성의 노동, 권력, 카테시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여성가족패널조사(2016)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

과 권력이론에서 주장한 기혼여성의 권력, 노동, 카텍시스가 아내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과 가족에서의 행동과 태도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이(spillover)된다는 전이이론과 상응하는 연구결과이다(한지숙·유계숙, 2007).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국사회에서 ‘아내의 수입’으로 대변되는 경제‘력’을 아내의 권력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취업기혼여성에게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소득 변인을 남편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상정한 것과 달리(이희정, 2010), 소득 변인을 세분화하여 아내의 소득을 별도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취업기혼여성에게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적 접근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국가, 고용주, 가족의 입장이 반영된 기존의 연구(박미석·김경아·김지은, 2007; 이희정, 2010)와 다르게 기혼여성의 시각에서 그녀들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인적자원, 일터에서의 직장인 혹은 가정에서의 어머니로서가 아닌, 본인의 삶의 전반에서 느끼는 정서와, 부부관계만족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분석결과 아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이는 아내의 소득이 증가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은기수(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부관계만족은 증가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아내의 소득이 아닌 가계소득을 변인으로 채택하여 가계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부관계만족이 증가함(이희정, 2010)을 밝히고 있지만, 아내의 소득이 부부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아내의 소득과 부부관계만족이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흥미롭게도, 아내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내의 부정적 정서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두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한국사회의 젠더 오더는 남녀차별적인 노동 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한국의 가족 젠더 레짐은 여전히 가족 내 성별분업이 뚜렷하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아내에 비해 현저히 적다. 따라서 이러한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의 젠더 오더와 가족의 젠더 레짐 속에서 여성의 취업은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을 부가적으로 추가하여 아내의 부정적 정서(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박정열 외(2014)는 전일제 여성 임금근로자가 시간제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아내들이 ‘남편은 집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에서 내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의 역할이라는 성별고정

관념을 내재화하고 있는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부의 성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해, 아내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내는 ‘남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부당함”에서 오는 부정적 정서를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 취업주부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인들 중에 전체효과가 가장 큰 순서는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직업성취, 자녀행복, 월평균 수입, 학력의 순서로 나타났다(박영신·김의철, 2011 : 65). 이는 아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아내의 소득(월평균 수입)이 아닌,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임을 뜻한다. 이는 취업주부들이 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가 취업주부들이 내재화한 전통적인 부부 간의 성별고정관념과 성역할 기대로 인한 것일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발견들은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같은 카텍식스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관계를 포함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집단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Knudsen과 Wærness(2008)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국가인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같은 사회에서는 취업여성의 비전통적인 젠더 가치와 정서(카텍식스)가 가사노동 시간을 보다 평등하게 배우자와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취약한 국가인 칠레, 러시아,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기혼여성의 비전통적인 젠더 가치와 정서가 배우자와의 가사노동 배분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Knudsen & Wærness, 2008). 이는 기혼여성의 가치와 정서(카텍식스)가 단순히 개인적,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구조와 보다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힘과 연계된 집단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이 높아지면 아내의 부정적 정서를 낮출 수 있다는 발견은 좋은 소식 중의 하나이다. 세부 경로를 살펴본 결과, 아내의 소득이 부정적 정서를 높이는 효과는 아내의 소득이 부부관계만족을 통해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매개효과로서 작용하였을 때, 아내의 부정적 정서를 더욱 많이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이는 아내가 남편에게 받는 정서적 지원이 높아지면, 아내의 어려움 극복효능감이나 행복이 높아지는 데 효과가 있다는 박영신과 김의철(2015:9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김진경(2015:74)의 주장대로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은 궁극적으로 아내의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은 높아지나

그만큼 아내의 부정적 정서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부부관계만족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이희정, 2010). 하지만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아진다는 김진경(2015)의 연구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각 경로들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아내의 부정적 정서를 높이지만 한편 부부관계만족이 높아져,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6〉 참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말하는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는 궁극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낮춘다는 결과(김진경, 2015 ; 이희정, 2010)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기혼여성의 경우, 아내가 삶의 전반에 걸쳐 느끼는 부정적 정서(우울,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내의 소득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보다는, 아내의 부부관계만족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단순히 기혼여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같이 기계적이고 양적인 접근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오히려 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그녀들의 ‘정서문제’와 ‘부부관계만족’과 같은 여성의 카텍시스 구조를 유리천장으로 대변되는 권력 및 노동 구조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한 총체적이고 질적인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접근방식이 더욱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아내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정책만으로는, 그녀들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혼여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우울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느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원하겠는가?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강조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기혼여성의 ‘정서적 안녕’을 고려하는 동시에 남녀차별적인 노동구조를 함께 개선하는 방안의 수립이 효과적인 여성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 한국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으로 대변되는 변수는 아내의 소득이었다. 따라서 가계 총 소득과 남편의 소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부의 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은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남편의 소득과 가계 총 소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부부사이의 권력으로 대변되는 또 다른 변수들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모형이 더욱 정교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경우에도, 여성가족패널 조사에서는 아내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측정하고 있어 남편의 실제 가사노

동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는 한계도 있었다. 따라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도 향후에는 남편도 짝표집을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편의 시간일지 작성을 통해 그들의 실제적인 가사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부부관계만족과 정서 등을 함께 조사하여 아내의 응답과 비교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Connell(1987)의 주장대로 젠더는 ‘관계적’ 개념이므로 아내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 년차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관점에서 설명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대변되는 아내의 소득과 감정,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사이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하는 종단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란혜(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가족 및 사회지원체제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2), 155-173.
- 권일웅·한승희(2015). “여성 공무원의 승진 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평등성과 공정정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2), 309-336.
- 김동진·전효정·고은경(201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인지발달장애학회지, 8(2), 103-121.
- 김석선·길민지(2016).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가족 구성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중모형분석 적용”. 보건사회연구, 36(3), 34-52.
- 김수·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한국사회학, 41(2), 147-174.
- 김종순·오세숙·윤소영(2016). “20-40대 직장여성의 일과 여가 그리고 행복의 관계”. 여가학연구, 14(4), 67-85.
- 김진경(2015).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 및 가정환경탐색 -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4), 63-79.
- 남순현(2009). “중년기 기혼여성의 성과 일에 대한 태도가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비교”. 인간발달연구, 16(1), 197-222.
- 마경희(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영향요인과 부부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학회 2004년 가을 기획심포지움, 119-144.
- 박미석·김경아·김지은(2007). “가정 내 변혁적 리더십 수준과 직업만족도 - 서울시 직장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21-36.
- 박영신·김의철(2011). “중년기 성인 남녀의 행복 형성 요인: 전업주부, 취업주부와 그들의 남편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1), 65-108.
- 박정열·손영미·오세숙(2014). “시간제 여성 임금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유형에 따른 시간 사용과 심리적 특성”. 여가학연구, 12(1), 79-105.
- 박정열·전은선·손영미·신규리(2016).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국내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여가학연구, 14(4), 1-22.
- 손영빈·윤기영(2011). “아버지의 역할지각,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31(5), 159-172.
- 옥경희·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11.

-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윤지원·황라일·조현하(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 이인정(2015). “남편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6(1), 343-370.
- 이희백(2009). “중년기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아내의 관점에서”.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2(1), 77-88.
- 이희정 (2010). “수입, 가사분담, 일가족 균형과 결혼만족도가 취업모의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7(1), 77-102.
- 조숙·정혜정·이주연(2015).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모성이데올로기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25-49.
- 조흥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2006).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6).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재선·문유경·김영란·김영택·전기택·송치선·한진영·김근태·은기수·이진숙 (2016). 2016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차근영·김석선·길민지(2017).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보건사회연구, 37(2), 126-149.
- 통계청(2014). 한국사회동향 2014. 통계청.
- 한지숙·유계숙(2007). “기혼근로자의 성역할 태도와 일가족 지향성이 일-가족 갈등/축진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5), 143-166.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 허식·엄주영(2017). “여성인력의 유리천장 현상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30(5), 1813-1836.
- 홍승아(201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한국모자보건학회, 32, 53-36.
- Anderson, S. A., & Sabatelli, R. M.(2003). *Family interaction: A multigenera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Boston, Mass: Pearson Education Co.

- Christopher, C., Umemura, T., Mann, T., Jacobvitz, D., & Hazen, N. (2015). Marital quality over the transtion to paranthood as a Predictor of coparent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12), 3636-3651.
- Connell, R.(1987). *Gender and power :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Cambridge : Polity.
- England, P. and Farkas, G.(1986) *Households, Employment and Gender : A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View*. New York : Aldine.
- Hook, J.(2006) Care in Context :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4), 639-660.
- Kline, R. B.(2011). *Hypothesis Testing. 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Knudsen, K. & Wærness, K.(2008). National context and spouses' housework in 34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 97-113.
- Myers, D. G.(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56-67.
- North, R. J., Holahan, C. J., Moos, R. H., & Cronkite, R. C.(2008). Family support, family income, and happiness : A 10-year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475-483.
- Lee, S. H.(2012). Mature women undergraduates and South Korean society : the dynamic interface of agency and structure in the historical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 World Economic Forum(2016).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 Korea, Rep.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report-2016/economies/#economy=KOR>에서 2017.12.15. 인출.

Abstract

**The HRD and the cathexis of married women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the
effect of wives' income, satisfaction with
marital relationship, and husbands'
housework on the wives' emotion**

Sunghoe, Lee*·Jiyoung, Yoon**

In the discussion of the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married women, the structure of cathexis has been neglected comparing to those of power and labour, which is often represented by 'glass ceiling'. Cathexis is defined as the construction of emotionally charged social relations with objects in the real world(Connell, 1987). Drawing on Connell(1987)'s theory of gender and power,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relationship among married women's power, labour and cathexis with empirical data, that is, 2016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as conducted regarding the effect of wife's income(economic 'power'), satisfaction with marital relationship (cathexis), and husbands' housework(labour) on the wives' negative emotion (stress, depression). Our analysis suggests that all the three factors(power, labour, cathexis) influenced on the wives' negative emotion. However, the most significant impact factor on the wives' negative emotion was the wives' satisfaction with martial relationship, rather than their income or their husbands' housework. These results reveal that current HRD policy gearing at enhancing married women's job skills to raise their employment rate is an approach that is too technical, quantitative and constrained. Rather, a more holistic and qualitative approach is required, which pays more attention to the combination of married women's emotional well-being and their marital relationship (cathexis) with their power and labour issues in their gender regimes of the family and the workplace.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 Senior Researcher,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Keywords : married women, human resources development(HRD)
for women, cathexis, marital relationship, wife's
emotion, work-life balance